

##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 1. 기본정보

학과	국제통상학과	이름	오xx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텍사스
파견대학	Sam Houston State University	파견기간	1년(2학기)
귀국여부	예		

###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샘 휴스턴 주립대학교는 텍사스, 헌츠빌이라는 작은 도시에 있는 학교입니다. 학교는 순천향대학교보다 조금 큰 편이고, 시설은 전체적으로 깨끗하며 계속해서 새로운 건물들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샘 휴스턴 주립대학교는 자연 친화적인 학교로서, 친근한 면이 순천향대학교와 비슷합니다.</p>
2018-2학기 수업	<p>저는 첫 학기에는 영어수업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전공 1개와 교양 3과목을 들었습니다. 전공으로는 거시경제학(Macroeconomics), 교양으로는 Public Speaking, Weather and climate, Geology 과목을 들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경제 과목은 한국에서 듣는 것 보다 미국에서 영어로 듣는 편이 더 알아듣기 쉽고, 내용도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한국에서 경제과목을 들을 때에는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된 경제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매우 어렵게 느껴졌지만, 미국에서는 용어 그대로를 사용하기에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전공 과목 수업때에는 교수님께서 먼저 개념강의를 하시고, 중간중간 이해를 돕기 위한 실전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챕터 별로 문제를 과제로 주셨습니다. 경제과목은 보통 중간에 쪽지 시험이 많기 때문에 평상시 공부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평소에 공부를 하다 보니 실제 중간, 기말 시험때는 부담이 덜합니다. 그리고 모든 수업에서 스터디 가이드가 주어지는데 이 스터디 가이드에 따라 공부를 하면 되기 때문에 시험 범위에 대한 걱정은 없었습니다. Weather and climate 수업은 무난한 수업이었고, Geology 수업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지질학에 정말 관심이 많은 학생이 아니라면 이 수업에서 배우는 모든 용어는 어렵고, 또한 weather and climate와 geology 수업에는 랩수업이 있었습니다. 랩수업이란 본 수업 때 간단하게</p>

	<p>배웠던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배우는 수업인데 랩수업에서도 매주 쪽지시험을 보기 때문에 공부량이 많습니다. Public speaking 수업은 조별로 수업이 진행되는데 어렵지 않고, 발표 비중이 큰 점수였습니다. 시험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른 이론 수업에 비해 훨씬 부담이 적은 수업이었지만, 교수님이 누군지에 따라 수업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흑인 교수님이었는데 악센트와 사투리가 강해서 교수님 말씀을 다소 알아듣기 어려웠습니다.</p>
<p>2019-1학기 수업</p>	<p>두 번째 학기에는 이론수업에 지쳤던 1학기를 생각하며 필라테스 수업과 Softball and volley ball 수업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World history, United states history, Financial Accounting 수업을 들었습니다. 샘 휴스턴학교는 절대 평가제 이기 때문에 서로의 경쟁을 부추기기 보다는 협동심, 배려 등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배구 수업 때는 제가 체육학과 전공생에 비해 너무 못해서 의기소침했는데, 많은 친구들이 격려해 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어서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필라테스 수업은 심신에 좋은 수업이었고 world history 수업은 온라인 수업이었습니다. United states history 수업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 수업은 진짜 알아듣기 힘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역사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교수님만 다르고 똑 같은 수업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선택 시 자신과 맞는 시간때도 중요하지만 어떤 교수님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도 수업스타일도 매우 다르고 성적 채점 방식도 다릅니다. 이 수업은 역시 스터디 가이드를 참고할 수 있고, 답을 작은 노트카드에 적어 시험시간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 수업은 제가 미국에 오기 전부터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회계수업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부담스러웠는데, 막상 수업을 듣고 나니 저의 기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고, 그날 배운 내용은 그날 과제로 내주셔서 다시 복습하면서 내용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p>

프로그램 운영	<p>샘 휴스턴 학교에도 international office가 따로 있는데, 여기에서 진행되는 오티가 개강 하루 전날에 있었습니다. 보통 외국인 친구들은 이곳에서 많이 많합니다. 오티에 참여해서 전반적으로 학교 시스템에 관련해서 듣고, 각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얘기할 시간이 주어집니다. 학교에서는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어서 학생이라면 무료로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습니다. 학교 안에는 학생들이 아플 때 가는 진료소가 존재하는데 무료는 아닙니다. 학교 보험으로 어느 정도는 커버해주지만 그 외에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international office에서 여러 정보를 메일로 발송해 줍니다. 학교에서 international 만찬회가 열리는데 이 곳에 참여하면 여러 외국인 학생과 또한 한국인 교수님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별 페스티벌이 열리는데 이때 참여하면 교환학생 이외에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국 학생들과 만날 수 있고, 여러 외국인 친구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p>
------------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텍사스의 여름은 특히나 뜨겁고 비가 오면 습합니다. 뜨겁고, 습하기 때문에 미국 친구들은 보통은 매일 에어컨을 틀어 놓습니다. 그래서 미국 실내를 갈 때에는 얇은 가디건 하나씩은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에어컨을 상시 틀어 놓기 때문에 실내와 실외 온도 차가 큼니다. 하지만 이런 텍사스도 겨울 때에는 춥습니다. 한국처럼 추운 것은 아니지만 겨울이 되면 최저 0도까지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얇은 경량 패딩 하나 챙겨 가시면 좋습니다.</p>
안전	<p>매우 안전합니다. 학교에는 안전을 위해 경찰들이 돌아다니고, 신청한다면 안심 귀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텍사스에는 교도소가 많아 많은 경찰들이 매일 순찰을 돕니다. 헨즈빌에 있으면서 총 소리 한 번 들어보지 못했을 만큼 안전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숙소</p>	<p>학교기숙사( ) 홈스테이 ( ) 외부 숙소(0) 기타( )</p> <p>저는 새로 지어진 외부 숙소에서 살았습니다. 학교와 5분 거리에 있어 걸어서 통학이 가능했습니다. 아파트는 새로 지어진 건물이었기 때문에 매우 깨끗하고, 밤에는 항상 가드가 돌아다니기 때문에 매우 안전했습니다. 또한 다른 아파트와는 다르게 자동 열쇠 여서 키가 없으면 아파트와 방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새 아파트이고 학교와 가깝기 때문에 다른 숙소에 비해서는 가격이 비싸지만, 방은 4인실, 3인실 등 다양합니다. 또한 방에서 발생하는 모든 전기세는 다른 룸메이트와 n분의 1로 내고, 방 안에는 화장실, 옷장, 침대, 책상, 의자, 선풍기가 구비되어 있고, 거실에는 텔레비전, 소파, 세탁기, 건조기가 비치해 있습니다. 그 외에 필요한건 전부 본인이 구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엌이 있어 재료를 사다가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달에 돈을 더 내고 반려견 및 반려묘 등을 키울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식사</p>	<p>학교 Meal Plan ( ) 학교식당 개별이용 (0) 홈스테이 ( ) 외부식당 (0) 직접 요리 (0) 기타 ( )</p> <p>개인적으로 학교 밀 플랜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학교 식당에 나오는 메뉴들도 날마다 다르기 때문에 맛있을 때는 맛있고, 별로일 때도 많습니다. 학교 식당은 뷔페식으로 되어 있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 외에도 서브웨이, 판다 익스프레스 등과 같은 식당이 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학교 주위에도 여러 식당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약 한시간 15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한국 마트가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는 배달도 가능합니다. 차가 없다면 이곳에서 배달 주문을 통해 집에서 요리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느끼한 미국 음식과 맞지 않는다면 재료를 사서 직접 집에서 해먹는 것이 낫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좋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교통</p>	<p>저는 학교와 매우 가까운 곳에 살았기 때문에 항상 걸어서 통학하였습니다. 헛츠빌은 시골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통수단은 없고, 카카오 택시와 비슷한 우버가 간혹 있긴 합니다. 하지만 차가 없으면 이동이 매우 힘듭니다. 학교에서 일주일에 2번씩 정기적으로 마트에 갈 수 있는 셔틀버스를 제공합니다. 헛츠빌 밖의 주위 도시에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차가 필요합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왕복 200만원	갈 때 : 70만원, 올 때 : 130만원
Fees	x	x
보험료	200만원	학교보험
숙소	900만원	한 달에 90만원(전기세 포함)
식비	250만원	한 달에 25만원
교통비	x	x
책값	40만원	1학기 : 30만원, 2학기 : 10만원
기타1	20-30만원	비자, 인터뷰
기타2		
합계	1,610-1,620만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만약 파견 학교에 같이 가는 사람이 있다면 같이 준비하는 것이 실수를 덜 하고 심적으로 안정을 얻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꼼꼼히 2-3번 살펴보고 일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학교 기숙사가 아닌 외부의 아파트와 계약해서 살 때, 계약조건은 반드시 직접 하나하나 다 읽어 보시고 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할 때는 신중해야 하고, 계약 시 담당자와 주고받은 메일은 만일을 위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비자 인터뷰를 너무 쉽게 생각 하지 말고, 가기 전에 어떤 질문을 주로 물어보는지 살펴보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어학연수 비자 인터뷰는 그리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만약 교환학생을 같이 가는 친구와 외부 기숙사에서 같이 산다면 룸메이트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일을 위해 한국에서 전공은 1-2개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더 인정받아 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능하면 한국 음식 많이 들고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30인치 캐리어에 전부 한국 인스턴트 음식들과 고추장 등을 챙겨갔습니다.

##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분량 자유)

솔직히 미국 가기 전에는 걱정도 되고, 내가 가서 혼자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설레는 마음도 컸지만 무서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가기 전부터 숙소와 관련하여 문제가 생겨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한국인 교수님을 만나 그 분 덕에 일이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걱정했던 일도 잘 마무리되니 본격적으로 다른 일에 더 집중해야 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학기에는 미국학교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잘 몰라서 헤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떤 일의 기간이 주어질 때 학생들이 그 일을 기한 안에 할 수 있도록 메일, 문자, 전화 등으로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는 우리 학교와는 달리 미국학교는 그 기한을 넘겨도 학교에서 아무런 상기도 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 부담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빨리빨리를 추구하는 한국과 달리 불일이 있어 어디를 가든 그 일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에는 이 점이 저를 매우 답답하게 했습니다. 제가 생각 하기에는 그리 오래 걸리는 일도 아닌데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지내다 보니 오히려 그러한 느긋함이 저를 편안하게 만들었고, 때론 답답할 때도 있었지만 느긋함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저를 놀라게 했던 점이 바로 수업방식과 시험방식 이었습니다. 수업시간에 미국 학생들이 정말 자유롭게 교수님께 질문을 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고, 어떠한 질문이든지 교수님들이 그 학생들을 격려한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평소 우리 학교 수업시간에는 학생들이 질문에 소극적인데, 미국에서는 학생들이 전혀 눈치보지 않고 자유롭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상대평가라는 방식이 늘 저를 경쟁적으로 만들었고, 쪼잔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친구들과 같이 공부해도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기는커녕 늘 경쟁자로 보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기 보다는 서로를 격려해주고, 저처럼 부족한 학생을 위해 자신의 공부법도 흔쾌히 공유하였습니다. 한국학교와 이러한 다른 점을 직접 보고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우리 나라와 다른 미국의 문화와 제도, 시스템 등을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우며 비교도 할 수 있고, 스스로 더 생각해 보게 되는 점이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1년이라는 시간이 길다고 생각했지만, 지내다 보니 매우 짧은 시간이었고, 저는 우물 안 개구리였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시간을 좀 더 알차게 쓸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것에 아쉬움도 남습니다. 하지만 과거로 돌아가 다시 한 번 교환학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망설이지 않고 다시 한 번 갔다 올 것입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휴스턴에서 열린 코리안 페스티벌</p>	<p>학교에서 본 여자 배구 경기</p>
	
<p>학교에서 열린 컬러런</p>	<p>샘휴스턴 학교 풋볼 경기</p>
	
<p>학교 랩(lab) 수업</p>	<p>헌츠빌 선셋</p>